

1, 2월의 해충 (XVII)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변 병 호/임업연구원 산림곤충과장



느티나무벼룩바구미의 피해립과 피해일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성충

이 해충은 느티나무 잎을 가해하는 벌레로 고궁과 공원등지에 대발생하여 잎을 조기 낙엽시켜 수세를 약화 시킬뿐만 아니라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곤충이다.

'93년 발생 상황을 보면 서울의 비원, 우이동, 충북의 단양, 충남의 부여, 전북의 내장산과 전남 백양사 국립공원에 피해가 심하였으며 점차 피해가 확대되는 경향이다.

- 분포 : 한국, 일본
- 가해수종 : 느티나무
- 가해상태 : 유충과 성충은 잎 뒷 면에서 엽맥을 남기고 엽

육만 먹으므로 피해 잎은 망상이 되고 점차 적갈색으로 변하며 가지에 붙어있어 피해가 심할때는 나무 전체가 적갈색으로 변하여 마치 단풍이 든것같이 보인다.

○ 형태 : 성충의 크기는 2~3mm이고 몸의 색깔은 흑갈색~황갈색이다 뒷다리는 적갈색이며 잘 발달되어 있어 벼룩과 같이 잘 뛰므로 벼룩바구미라 한다.

○ 생태 : 1년에 1회 발생하며 성충으로 월동한다. 월동한 성충은 4월부터 출현하여 잎을 가해하면서 잎의 표면에 1개씩

산란한다. 부화 유충은 엽육을 가해한 후 5월 상순부터 잎의 선단 엽내에서 번데기가 된다. 신성충은 5월하순부터 6월하순까지 우화 탈출하여 잎을 먹는다. 7월 이후에는 유충을 볼 수 없으며 신성충은 10월까지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확한 월동 장소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수피내에서 월동하고 있는 성충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 방제법 : 번데기 기간인 5월중순에 메프유제 1,000배액을 수관에 고루살포한다.▲▲